2026 KRX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벤치마크 진단

주요 항목별 벤치마크 진단 결과지

『2026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 벤치마크 대비 현황 진단

수검 기업	**대동금속㈜**	진단 기준일	**2026-08-17**
시장 · 업종	**코스닥시장 · 산업재** (백서 모집단 41개사)	데이터 기간	**FY2023–FY2025 (제36기~제38기)**
재무제표 기준	**별도 (K-IFRS) —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음**	KRX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공시 (2026-05 「기업가치 제고 계획」)**

종 합 판 정

위험

하드룰 발동 — 규칙이 판정을 결정한 상태

위 험
R ADVISORY · VB

FY2025 지배주주순손실 1,390백만원으로 하드룰이 발동해 종합판정은 「위험」이다. 판정 가능한 4개 지표가 전부 🔴이나, 2026년 5월 계획 공시로 12항목은 13/24점이 되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다. 계획은 섰고 실적이 아직 따라오지 않은 구간이다.

판정 분포 — 대조 지표 11개

위험 4 · 주의 0 · 양호 0 · 참고/산출불가 7



■ 위험 — 두 기준선 모두 미달 ■ 주의 — 기준선 사이 ■ 양호 — 높은 기준선 이상 ■ 참고·산출불가 — 백서 벤치마크 부재 또는 입력 누락

● 당기순손실 — ROE가 음(-)이므로 Equity Spread는 자동으로 자본비용 미달입니다. 배당성향·주주환원율은 분모가 음수라 산출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출처 『2026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 110p
목표치 = 완결형 공시 187개사가 약속한 수준(PART 02) · 실적치 = 시장 기록(PART 03)
결과지 서식 v2.0 (2026-08-15)

ISSUED BY KONNECT

제도의 취지와 핵심사항

PURPOSE OF THE PROGRAM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진단하고 목표와 실행계획을 시장에 알리는 자율공시 제도다.

제도의 축은 「진단 → 목표 → 계획 → 이행평가 → 소통」의 순환이며, 그 출발점인 현황진단은 자본수익성(ROE)·자본비용(COE)·시장평가(PBR)를 정량적으로 대조하는 데서 시작한다. 본 결과지는 그 출발점을 백서 벤치마크로 대신 수행한 것이다.

제도 성격	작성 주체	공시 방법·주기	이사회 관여
자율공시	**전략·재무 부서**	**KIND · 연 1회**	**의무 아님**
참여 여부·지표 선택·시계(視界) 전부 기업 자율 (p.103~104)	「전략 및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p.105)	계획서 첨부 제출, 주기적 공시 권장. 홈페이지 공개보다 KIND가 먼저 (p.105)	보고·심의·의결은 의무가 아니나 거친 경우 기재 시 신뢰도 제고. 실제 참여 73% (p.104·p.33)

제도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

FIVE CHARACTERISTICS

자율성	참여 여부, 사용할 지표, 목표 시계를 기업이 정한다. 표준 서식·파일형식도 자유이며 가이드라인 내용 전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103~104
미래지향성	과거 실적 보고가 아니라 도달하려는 상태와 그 경로를 제시하는 문서다. 목표에는 예측이 수반된다는 점을 제도가 전제한다.	p.103
종합성	재무지표만이 아니라 사업모델·시장환경·경쟁우위·리스크·지배구조를 함께 다룬다.	p.103·p.106
선택과 집중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 강조할 부분을 선정할 수 있음」. 우수사례 20건도 각 사가 단 1개 항목에서만 선정되었다.	p.104·p.82
이사회 책임	이사회 보고·심의·의결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거친 경우 개최일자·심의 내용을 기재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p.104

표준 목차

기업개요 → 현황진단 → 목표설정 → 계획수립 → 이행평가 → 소통

가이드라인 표준 목차 (p.106). 서식·파일형식은 자유이며 항목 생략도 가능하다 (p.104).

12개 평가항목 거래소는 공시 내용을 12개 평가항목으로 심사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p.73~82). 2025년 선정 20건은 각 사가 단 1개 항목에서만 선정되었고, 코스닥은 20건 중 4건(①④⑦)에 그친다. ② 자본비용(COE) 분석은 전체 587개사 중 1건뿐이다. 12개를 모두 채우는 전략은 이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 VI의 자가채점은 그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 백서 p.105 · 다만 허위기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업종, 사업구조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의미가 크고,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백서 p.104

>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원론적인 목표 설정 지양」*
> — 백서 p.76 · 목표에는 기간과 산출 방법론이 함께 붙어야 한다.

제도가 만든 관측 결과 주기적 공시기업 주가 +100% · 본공시 기업 시총 비중 72.2% · 기관투자자 최우선 평가요소 38% — 출처와 기준일은 「시장 맥락」 절에 함께 싣는다.

적용 당사는 2026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했다(첨부 계획서 12면). 따라서 본 진단은 미공시 기업의 착수 진단이 아니라 공시된 계획과 백서 기준선을 대조하는 진단이다. 코스닥 상장사이므로 백서 12개 평가항목 중 ②⑥⑨⑩⑪⑫는 백서 선정 0건 구간이다.

II 벤치마크 체계와 산출기준

BENCHMARK BASIS

백서의 수치는 성격이 다른 두 계열이며 섞으면 진단이 무너진다. 본 결과지는 모든 지표에 두 기준선을 함께 표시하고, 값의 위치로만 판정한다.

기준선	모집단	출처	의미 — 무엇을 재는 자인가
목표선 업종 공시기업이 앞으로 도달하겠다고 약속한 수준	완결형 공시 187개사 (고배당 약식 400개사 제외)	백서 PART 02 · p.34~53	우리 목표가 업종 대비 튀는지를 재는 자
실적선 시장이 실제로 기록한 수준	공시 587개사 / 미공시 1,994개사	백서 PART 03 · p.54~71	현재 위치를 재는 자

산업재 ROE는 목표 14.2% vs 실적 5.8%로 2.4배 차이난다. 어느 선을 인용하는지 문장에 반드시 명시한다.

산식

FORMULAS

내재 COE (백서 산식)

COE = ROE ÷ PBR

영구성장률 g = 0 가정 (p.40 각주). 참고 표기 전용 —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외생 COE (판정용)

COE = Rf + β × ERP

CAPM 입력값이 있으면 우선, 없으면 업종 도출 COE(p.40)를 쓴다

Equity Spread

ES = ROE − 외생 COE

내재 COE로 재면 ES = ROE(1 − 1/PBR)이 되어 「PBR이 1을 넘는가」의 동어반복이 된다

목표 PBR 상한

상한 = 목표 ROE ÷ 업종 도출 COE

초과 시 p.41 경고 대상 — 검증 부담과 시장 불신

백서 벤치마크는 여섯 계열이다

SIX FAMILIES

계열	이름 · 성격	모집단	출처	용도
A	**목표치 벤치마크** 공시기업이 약속한 수준	완결형 187개사	p.34~53	목표의 공격성 검증
B	**실적 벤치마크** 시장이 기록한 수준	공시 587 / 미공시 1,994	p.54~71	현황진단의 비교 기준
C	**국제 벤치마크** 국가 간 비교	MSCI Index	p.15·56·62	저평가 논거
D	**지배구조 벤치마크** 15개 핵심지표 채택·이행	187 / 87 / 46개사	p.50~52·71	평가항목 ⑫ 목표 설계
E	**제도·심사 벤치마크** 12개 평가항목·우수사례 20건	2025년 공시분	p.73~82	어느 항목을 노릴지
F	**시장 기대 벤치마크** 기관투자자 설문	103명	p.98~101	무엇을 중시하는지

본 결과지 III의 판정은 A·B만 사용한다. C·D·E·F는 판정에 쓰지 않고 VI·VIII의 맥락으로만 인용한다.

판정 규칙

JUDGMENT RULE

양호 두 기준선 중 높은 쪽 이상 · 주의 두 기준선 사이 · 위험 두 기준선 중 낮은 쪽 미만 · 참고 백서에 기준선이 없는 지표 — 값만 표기 · 산출불가 입력 누락 — 무엇이 없었는지 표지에 기재

두 선의 상하 관계와 무관하게 단조(monotone)하도록 정의했다. 정보기술 업종처럼 목표 배당성향 23%가 시장 실적 37.4%보다 낮은 역전 사례가 실재하므로 「목표선 이상이면 양호」 규칙은 쓸 수 없다. Equity Spread만 예외로 0%p 이상 양호 / −2%p 이상 주의 / 미만 위험으로 본다.

인용 시 주의 표마다 모집단이 다르다. 목표 ROE 합계 12.0%는 ROE 제시 109개사, 도출 COE 전체 11.4%는 ROE·PBR 동시 제시 기업 기준이다. · 에너지 3개사·유틸리티 1개사·기타 1개사는 백서에서 「업종 평균」으로 표기되나 대표성이 없다. 해당 업종은 판정을 참고로만 쓴다. · 목표치 표에는 시장별(코스피/코스닥) 분해가 없다. 코스닥 비교는 실적 기준(p.66)만 가능하다. · 도출 COE는 개별 기업별 산출 후 평균한 값이라 표의 평균끼리 나눠 검산되지 않는다(전체 10.0% vs 11.4÷1.04 = 10.96%).

II 벤치마크 체계와 산출기준 계속 — 본 진단 적용분

BENCHMARK BASIS · CONT.

현황진단 시 고려사항 SCOPE

사업모델	주요 사업부문 구분, 제품·서비스 종류와 특징, 사업부문별 매출·이익 추이 및 비중
시장환경	시장 특성·규모, 경쟁환경, 점유율과 시장 내 위상
경쟁우위요소	인적·물적 자원, 기술력
리스크요인	거시경제·산업·개별기업 측면의 주요 리스크

가이드라인 지표 분류 METRICS

시장평가	PBR, PER 등
자본효율성	[자본수익성] ROE, ROIC / [자본비용] COE(주주자본비용), WACC
주주환원	[배당] 배당금액·배당성향·배당수익률 / [자사주] 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 [종합] TSR, 주주환원율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자산증가율, R&D투자증가율
기타	자산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 FCF, 부채비율

현황진단 시 고려사항 (p.106). 본 결과지는 이 중 정량 축(자본효율성·시장평가·주주환원·성장성)만 대조한다. 사업모델·시장환경·경쟁우위·리스크 서술은 공시서류 작성 단계의 몫이다. 가이드라인이 예시한 지표 분류 (p.107). 본 결과지 III의 대조표는 이 분류를 따른다.

본 진단에 적용된 기준선 APPLIED BASE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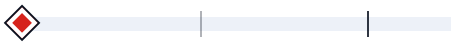
지표	실적선 목표선	산출 출처	모집단 · 주의	의미 — 무엇을 재는가
ROE (자기자본이익률)	5.8% 14.2%	업종 2025 실적 ROE (p.67) 업종 목표 ROE (p.40)	목표 = ROE 제시 109개사	자본이 만들어내는 수익률. 저평가가 수익성 문제인지 판별하는 1차 축
PBR (주가순자산비율)	1.1배 1.6배	업종 2025 실적 PBR (p.67) 업종 목표 PBR 평균 (p.38)	목표 = PBR 제시 46개사	시장이 자본에 매기는 값. 목표선 제시는 상위 26%에 드는 희소 축
COE (자기자본비용)	— 9.0%	없음 (참고 표기) 업종 도출 COE (p.40)	ROE·PBR 동시 제시 기업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 평가항목 ②의 핵심이며 전체 587개사 중 1건만 선정된 축
Equity Spread (ROE − COE)	0.0%p 0.0%p	기준 0%p 기준 0%p	—	ROE − COE. 음수면 PBR이 1배를 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된다
배당성향	37.4% 35%	시장 2025 배당성향 (p.66) 업종 목표 배당성향 (p.43)	실적선은 업종별 분해가 없어 시장선 사용	순이익 중 배당으로 나가는 비율
주주환원율	37.4% 39%	시장 배당성향 대용치 (p.66) 업종 목표 주주환원율 (p.43)	주주환원 목표 제시 162개사	배당 + 자사주까지 포함한 총환원. 실적선은 대용치이므로 판정을 좁게 읽는다
TSR (1년)	— 25%	없음 업종 목표 TSR (p.43)	TSR 제시 15개사	주가상승 + 배당의 총주주수익률

판정하지 않는 지표 — 배당수익률 (—) · 매출액 CAGR (성장성 제시 112개사 — 개수만 존재) · 영업이익 CAGR (영업이익 목표 25개사 — 개수만 존재) ·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제시 38개사 — 개수만 존재). 아래 항목은 백서에 벤치마크가 없다. 본 결과지는 값만 표기하고 판정하지 않는다 — 없는 기준선을 있는 것처럼 쓰지 않는 것이 이 진단의 하드룰이다.

적용 시가총액(2026-08-14 종가 3,160원 × 무상증자 후 6,378,332주 = 201.6억원) 확보로 PBR·COE·Equity Spread를 모두 산출했다. 당기순손실로 배당성향·주주환원율은 산출불가로 남겼다.

III 벤치마크 대조표

BENCHMARK COMPARISON

검사 항목	산식	결과값	참고범위	실적선	목표선	판정
자본효율성 · 시장평가 실적선 = 백서 PART 03 · 목표선 = 백서 PART 02						
ROE (자기자본이익률) 3개년 평균 -4.5%	지배주주순이익 ÷ 평균 지배주주지분 × 100	-3.11%		5.8%	14.2%	위험
PBR (주가순자산비율) 업종 목표 범위 0.6~3.0배	시가총액 ÷ 지배주주지분	0.46배		1.1배	1.6배	위험
COE (자기자본비용) 산출근거 내재(ROE÷PBR, g=0) · 업종 도출 COE 9.0%	내재 COE = ROE ÷ PBR (영구성장률 g=0 가정, 백서 p.40 각주) / CAPM = Rf + β×ERP	-6.72%		–	9.0%	참고
Equity Spread (ROE − COE) 판정 기준 COE = 업종 도출 COE 9.0% (백서 p.40) · 내재 COE 기준 3.61%p (참고 — PBR>1 여부의 재진술이므로 판정 근거로 쓰지 않음)	ROE − COE(외생). 0 이상이면 자본비용을 넘어선 상태 = PBR>1의 이론적 조건	-12.11%p		0.0%p	0.0%p	위험
주주환원 실적선 = 백서 PART 03 · 목표선 = 백서 PART 02						
배당성향 공시기업 평균 48.2% · 미공시 29.7% (p.66)	현금배당총액 ÷ 당기순이익 × 100	–		37.4%	35%	산출불가
주주환원율 ⚠ 실적선은 시장 배당성향 대용치입니다(백서에 주주환원율 실적 벤치마크 없음)	(현금배당총액 + 자사주 취득액) ÷ 당기순이익 × 100	–		37.4%	39%	산출불가
배당수익률 백서에 목표 배당수익률 업종 벤치마크 없음(제시 7개사) — 참고 표기	주당배당금 ÷ 주가 × 100	0.95%		–	–	참고
TSR (1년) TSR 실적 벤치마크는 백서에 없음 — 목표선만 대조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 100	7.23%		–	25%	위험
성장성 · 수익성 실적선 = 백서 PART 03 · 목표선 = 백서 PART 02						
매출액 CAGR ⚠ 백서에 업종별 목표 매출성장률 수치표 없음 — 참고 표기(제시 104개사)	(FY2023→FY2025) 연평균 성장률	-12.53%		–	–	참고
영업이익 CAGR ⚠ 백서 벤치마크 없음(제시 25개사)	연평균 성장률	-72.22%		–	–	참고
영업이익률 ⚠ 백서에 업종별 목표 영업이익률 수치표 없음(개수만 존재) — 자체 근거 필요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0.1%		–	–	참고

판정 규칙 — 두 기준선 중 **높은 쪽 이상 = 양호** / **사이 = 주의** / **낮은 쪽 미만 = 위험**. 기준선이 없는 항목(백서 미제공)은 값만 표기하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IV 주요 이상 소견 KEY FINDINGS

위험 ROE (자기자본이익률) -3.11%

실적선 **5.8%** · 목표선 **14.2%** · 목표선까지 17.31%

ROE -3.11%(3개년 평균 -5.0%)는 산업재 실적선 5.8%·목표선 14.2%를 모두 밑돈다. 공시 계획의 2030년 목표 ROE는 10%로 업종 목표 평균 14.2%보다 낮게 설정됐다. 분자인 순손실뿐 아니라 분모도 3년간 52,438 → 43,539백만원으로 17.0% 줄었으므로, 목표 10% 달성 경로가 이익 회복인지 자본 축소의 결과인지를 구분해 밝힐 필요가 있다.

위험 PBR (주가순자산비율) 0.46배

실적선 **1.1배** · 목표선 **1.6배** · 목표선까지 1.14배

PBR 0.46배는 코스닥 실적선 1.8배·산업재 목표선 1.6배와 큰 격차가 있다. 공시 계획은 2030년 목표 PBR을 2.0배로 제시했는데, 같은 계획의 목표 ROE 10%를 산업재 도출 COE 9.0%로 나눈 이론적 상한은 1.11배다. 목표 PBR이 자사 목표 ROE가 지지하는 수준의 약 1.8배라는 점은 백서 p.41이 지목한 구조다.

위험 TSR (1년) 7.23%

실적선 **—** · 목표선 **25%** · 목표선까지 17.77%

TSR 7.23%는 산업재 목표선 25%를 밑돈다. 다만 이 값은 무상증자(1:1, 2026-05-07 상장) 권리락을 반영해 1년 전 주가를 환산한 것이며, 52주 범위가 2,300~8,900원으로 변동성이 극단적이라 단년 TSR을 성과 지표로 쓰기에는 신뢰구간이 넓다. 공시 계획에는 TSR 목표가 없으므로 목표선 25%는 업종 기준선으로만 대조했다.

V 업종 표준 목표 레인지 TARGET RANGE

목표 ROE	목표 PBR
5.5% → 14.2% **중기 → 장기 2단계** 현재 ROE -3.1%와 업종 목표 평균 14.2%의 갭이 17.3%p로 10%p를 초과합니다. 단일 목표는 검증부담이 커지므로 중기 5.5% → 장기 14.2%의 2단계로 제시하십시오.	**1.6배** **업종 범위 0.6~3.0배 · 상한 1.58배** 목표 PBR 상한 = 목표 ROE 14.2% ÷ 업종 도출 COE 9.0% = 1.58배. 이를 넘는 목표는 백서 p.41 경고 대상(「과도하게 높은 PBR … 검증 부담 … 시장 불신」).
목표 주주환원율	**목표 기간**
39% **배당성향 35%** 업종 목표 주주환원율 평균 39% (배당성향 35%). FCF·순이익 데이터 부족으로 여력 검증 불가.	**3년** **중기** 중기 3년(FY+3) — 백서 표준(중기 52.9% / 3~5년, p.36)

지표 채택률 맥락 산업재 업종에서 시장평가(PBR) 목표를 제시한 기업은 17%뿐입니다 — 제시하면 상위군에 듭니다. 자본효율성 66% · 주주환원 83% · 비재무지표 70.7% (백서 p.35·p.53)

> *「그러나 ROE÷COE 대비 과도하게 높은 PBR을 설정할 경우, 향후 성과에 대한 검증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 백서 p.41

VI 12개 평가항목 자가채점

KRX 12-ITEM SELF SCORING

1	다각적·입체적 현황진단 우수사례 티씨케이(코스닥), 피에스케이홀딩스(코스닥)	부분
2	자본비용(COE) 등 분석 우수사례 한화시스템 · 코스닥 0건	미충족
3	중장기 계량적 목표설정 우수사례 지역난방공사, 케이씨씨 · 코스닥 0건	충족
4	종합적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우수사례 코미코(코스닥)	부분
5	목표달성 위한 구체적·합리적 계획수립 우수사례 키움증권, 하나투어 · 코스닥 0건	충족
6	임직원 인센티브 연계 우수사례 신한지주, 농심 · 코스닥 0건	부분
7	목표달성 평가 및 원인분석 우수사례 디케이앤디(코스닥), LG이노텍	미충족
8	이행평가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 우수사례 하나금융지주, 강원랜드 · 코스닥 0건	미충족
9	주요 경영진(C-level·이사회)의 소통 참여 우수사례 롯데쇼핑 · 코스닥 0건	충족
10	적극적인 소통정책 수립 및 이행 우수사례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지주 · 코스닥 0건	충족
11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영문공시) 우수사례 한국항공우주 · 코스닥 0건	부분
12	구체적 지배구조 개선 목표·이행일정 우수사례 코웨이, 풀무원 · 코스닥 0건	부분

자가채점 **13** / 24점 응답 12/12항목

우수사례 20건은 각 사가 **단 1개 항목**에서만 선정됨 — 선택과 집중이 맞습니다

선점 가능 항목 (희소성 순)

- **2. 자본비용(COE) 등 분석** — 전체 우수사례 1건뿐 · 코스닥 선정 0건 · 희소성 최고 · 재무데이터로 즉시 착수 가능
- **11.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영문공시)** — 전체 우수사례 1건뿐 · 코스닥 선정 0건 · 희소성 높음
- **4. 종합적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 전체 우수사례 1건뿐 · 재무데이터로 즉시 착수 가능
- **6. 임직원 인센티브 연계** — 코스닥 선정 0건 · 희소성 높음

VII 종합 소견

CLOSING OPINION

저평가의 위치는 자본효율이며, 공시된 계획은 이를 성장으로 풀겠다고 선언했다. FY2025 매출 101,817백만원에 영업이익 100백만원, 영업이익률 0.10%, 가동률 50.6%다. 계획은 2030년 매출 2,400억원(CAGR 18.7%)과 신사업 비중 28%를 제시했다. 다만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조업도가 현재 손실의 직접 원인이므로, 매출 성장 경로와 별도로 손익분기 조업도가 어디인지는 계획에 아직 없다.

Equity Spread -12.11%p는 PBR이 1배를 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 그 자체다. 판정에 쓴 COE는 산업재 업종 도출 COE 9.0%(백서 p.40)이며, 내재 COE는 ROE가 음수여서 쓰지 않았다. 공시 계획 전 12면에 자기자본비용·요구수익률·COE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587개사 중 COE를 명시적으로 분석한 백서 선정사례는 1건뿐이므로, 이 한 축을 채우는 것이 평가항목 ②를 미충족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경로다.

목표 PBR 2.0배는 자사 목표 ROE 10% ÷ 도출 COE 9.0% = 1.11배를 상회한다. 업종 목표 ROE 14.2%를 쓰더라도 상한은 1.58배로, 2.0배는 어느 기준으로도 초과다. 백서 p.41은 근거 없이 높은 PBR 목표가 검증 부담과 시장 불신을 부른다고 지목한다. 목표 배당성향 20%도 산업재 목표 평균 35%를 밑돈다. 두 수치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PBR 2.0배를 유지하려면 목표 ROE를 함께 올리거나 COE를 낮출 근거를 제시해야 숫자들이 서로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선점 여지가 큰 항목은 여전히 ②와 ⑪이다.

VIII 시장 맥락

MARKET CONTEXT

주기적 공시기업 주가	공시기업 시총 비중	기관투자자 최우선 평가요소
+100%	**72.2%**	**38%**
단회 +82% · 미공시 +59% 2024-05-27=100p, 2026-03-31 기준 (p.59)	본공시 587개사 유가 305 / 코스닥 282 (p.30)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여부」 + 중장기 목표·지표 적합성 29% (103명, p.100)

IX 다음 단계

NEXT STEPS

목표 PBR 2.0배와 목표 ROE 10%의 정합 근거 보완 — COE 가정을 명시하면 두 수치가 연결된다.

손익분기 조업도 산출 — 가동률 50.6%에서 매출 2,400억 경로의 출발점이 여기다.

이행평가 체계 설계 — ⑦⑧⑪⑫가 미충족으로 남아 있고, 백서는 주기적 공시를 관측 축으로 본다.

REFERRAL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서류 작성

본 진단은 **현황 대조와 목표 레인지 제시**까지입니다. KIND 제출용 완결형 본공시 작성(COE 산출 근거·Equity Spread 시계열·12항목 충족 설계·지배구조 로드맵)은 별도 단계입니다.

출처 『2026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한국거래소, 110p). 목표치 벤치마크는 '26년 3월 말까지 완결형 계획을 제출한 **187개사**(고배당 약식 400개사 제외), 실적 벤치마크는 공시 587개사·미공시 1,994개사 기준입니다.

COE 산식 백서 p.40 각주 「COE = ROE ÷ PBR, 영구성장률은 0% 가정」. 본 진단의 Equity Spread는 이 **내재 COE가 아니라 외생 COE**(CAPM 또는 업종 도출 COE)로 산출했습니다 — 내재 COE로 스프레드를 재면 「PBR이 1을 넘는가」의 동어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본 주의 에너지 3개사·유틸리티 1개사·기타 1개사는 백서에서 「업종 평균」으로 표기되나 대표성이 없습니다. 해당 업종은 판정을 참고로만 사용하십시오.

백서에 없는 벤치마크 업종별 목표 영업이익률 수치표 (개수만 존재: 수익성 43개사·영업이익률 38개사) · 부채비율·유동비율 목표 벤치마크 · 목표치의 시장별(코스피/코스닥) 분해 — 실적 기준 시장별만 존재(market_actual). 해당 지표는 값만 표기하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고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공시이며, 백서 p.105는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허위기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한계 본 결과지는 제공 데이터 기반의 분석적 검토(review)이며 감사(audit)가 아닙니다. 투자·신용 판단의 단독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X 항목별 개선방향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13단계 항목 전체에 대한 개선방향입니다. 각 방향은 KIND 밸류업 공시 첨부 계획서 **427건 / 222개사**를 구조화한 관측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채택 건수는 **관측 빈도이며 우수성 지표가 아닙니다** — 업종·규모·상황에 따라 맞는 선택이 다르므로 최종 선택은 회사가 합니다. 비율은 탐지 재현율 75% 기준의 **하한**입니다.

① 기업가치 진단

부분충족 · 487자

코퍼스 채택 재무상태 3축 채택 당기순이익 91.3%(390건)·매출액 81.5%(348건)·영업이익 77.5%(331건) · 주주구성 최대주주 52.0%

공시 계획 5면에 3개년 요약재무(자산·부채·자본·매출·영업이익·순이익)와 구성비·증감율이 실렸고, N/C 매출비중 88.5%와 신규수주 484억원도 제시됐다. 코퍼스 상위 축인 재무상태 3축은 충족한다. 비어 있는 것은 주주구성 축(최대주주 52.0%·기관 48.2% 채택)이다. 최대주주 ㈜대동 52.8%, 소액주주 3,282명·40.11%, 외국인 2.70%는 사업보고서에 이미 있어 추가 산출 없이 넣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부문 손익이다. 4면 포트폴리오는 6개 시장(농기계·자동차·건설기계·반도체·조선·방산)을 도식으로 보여주지만 부문별 매출·이익 수치는 없다. 방향은 둘이다. 주주구성만 보강하는 A안은 기존 자료로 끝나고, 부문 손익과 가동률 50.6%를 붙이는 B안은 왜 매출 1,018억원에 영업이익 1억원인지를 진단 단계에서 설명하게 된다. 계획이 이미 「저평가 요인 해소」를 목적으로 걸었으므로 B안은 ④와 한 묶음으로 작성하면 중복 없이 이어진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공시 계획 4~5면

선택 시 필요한 것 B안 선택 시 부문별 원가배부 기준 확정과 관리회계 정비. 결정 주체는 경영본부.

② 시장평가 분석

미충족 · 492자

코퍼스 채택 자사ROE 80.6%(344건) · 자사PBR 62.5%(267건) · 자기자본비용 26.0%(111건) · 자본비용 축은 case1에서 50.4%

공시 계획 6면에 2025년 PBR 0.4배·ROE -3.2%가 현재값으로 표기돼 본 진단의 0.46배··3.11%와 정합한다. 코퍼스 상위 축인 자사ROE·자사PBR은 충족한다. 없는 것은 자본비용이다. 12면 어디에도 자기자본비용·요구수익률·CAPM·Equity Spread가 나오지 않는다. 이 축은 코퍼스 채택 26.0%(111건)이고 백서 선정사례는 587개사 중 1건, 코스닥은 0건이다. 자사는 시가총액·자본총계·순이익이 확정값이라 산출 자체는 즉시 가능하다. 갈리는 지점은 방법이다. CAPM으로 직접 산출하는 A안은 β와 시장위험프리미엄을 회사가 정해야 하고, 업종 도출 COE 9.0%를 인용하는 B안은 검증부담이 없는 대신 자사 고유 위험이 반영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목표 PBR 2.0배의 근거가 이 값에서 나온다. COE를 적는 순간 Equity Spread -12.11%p가 함께 드러나지만, 그 수치야말로 계획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p.40 · 공시 계획 6면

선택 시 필요한 것 A안 선택 시 β 산출기간·출처 확정과 무위험수익률 기준일 고정. 이사회 보고 경로 지정.

③ Peer 분석

미충족 · 459자

코퍼스 채택 PER 62.8%(268건) · 애널리스트 41.2%(176건) · Peer비교 32.8%(140건) · 글로벌비교 6.3%(27건)

공시 계획은 2030년 목표 PER 10배를 제시했으나 그 10배가 어느 집단의 무엇과 비교한 수준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12면에 Peer 기업명이나 동종업 지표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코퍼스에서 이 항목은 361건(84.5%)이 다뤘고 PER 제시가 62.8%로 가장 흔하지만, 자사는 순손실이라 현재 PER 산출이 불가능해 목표값만 떠 있는 상태다. 쓸 수 있는 축은 Peer비교(32.8%)와 배당수익률(27.6%)이다. 방향은 Peer군 정의에서 갈린다. 동일 KSIC 주물업으로 좁히면 표본이 적은 대신 원가구조가 같아 조업도 비교가 성립하고, 계획이 겨냥한 모빌리티·로봇·방산·조선 소재군으로 넓히면 목표 PER 10배의 준거는 생기지만 현재 사업구조와의 거리가 드러난다. 두 정의를 병기하고 각각의 지표를 따로 싣는 방식도 코퍼스에서 관측된다(Peer비교 140건 중 다수가 국내·글로벌을 나눠 제시).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공시 계획 3·6면

선택 시 필요한 것 Peer군 선정 기준의 문서화, 비교 기준일 고정, 데이터 출처(거래소·평가기관) 확정.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④ 저평가 원인 분석

부분충족 · 503자

코퍼스 채택 ROE개선필요 22.7%(97건) · 자산효율화 14.3%(61건) · 성장정체 8.7%(37건) · 수익성부진 7.3%(31건)

공시 계획 3면은 「저평가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목적으로 선언하고, 6면은 「가치 격차(Value Gap) 해소」를 내걸었다. 다만 그 요인이 무엇인지는 「저수익 자산 청산 등」 한 줄이 전부다. 코퍼스에서 이 항목은 240건(56.2%)이 다뤘고, 축은 자본효율성(ROE개선필요 22.7%, 자산효율화 14.3%)과 문제점 명시(성장정체·수익성부진) 둘이다. 자사는 두 축 모두 수치가 있다. 총자산 98,820백만원 중 유형자산이 67,600백만원으로 68.4%인데 가동률은 50.6%이므로, 「저수익 자산」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라인 단위로 특정할 수 있다. 방향은 특정 범위에서 갈린다. 조업도 부진만 적는 A안은 회복 시나리오가 단순해지고, 자산 규모 자체를 적는 B안은 처분·재배치 논의를 열게 되며 최대주주 52.8% 구조상 이사회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원인을 전방 수요·환율 같은 외부 요인만으로 적으면 이미 공시된 목표 ROE 10%를 무엇으로 달성할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공시 계획 3·6면

선택 시 필요한 것 유형자산 라인별 가동 실적 집계, 유휴 판정 기준, 처분 시 회계영향 사전 검토.

⑤ 제고 목표 설정

충족 · 529자

코퍼스 채택 중기계획 60.4%(258건) · 목표연도명시 41.2%(176건) · ROE목표 38.4%(164건) · PBR목표 9.8%(42건)

목표는 2030년 매출 2,400억원·PER 10배·PBR 2.0배·ROE 10%·배당성향 20%로 모두 계량화됐고, 연도별 매출 경로(2026년 1,134억 → 2030년 2,400억)와 신사업 비중까지 제시돼 이 항목은 충족이다. 산업재에서 PBR 목표를 제시한 기업은 17%뿐이므로 제시 자체가 희소하다. 대조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목표 PBR 2.0배는 자사 목표 ROE 10% ÷ 도출 COE 9.0% = 1.11배를 넘는다. 둘째, 목표 ROE 10%는 업종 목표 평균 14.2%보다 낮아 PBR과 ROE 목표의 방향이 엇갈린다. 셋째, 목표 기간 5년은 백서 표준인 중기 3년(채택 52.9%)보다 길다. 방향은 PBR 목표를 유지하며 ROE 목표나 COE 가정을 조정하는 안과, 목표 PBR을 상한 이내로 재설정하는 안으로 갈린다. 수치 확정은 회사의 몫이며, 이 결과지는 상한의 산식과 그 근거 페이지까지만 제시한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세 수치가 서로를 지지하도록 한 문단 안에서 연결해 적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p.36·p.41 · 공시 계획 3·6면

선택 시 필요한 것 COE 가정의 명문화, 중간 목표연도(FY+3) 설정 여부, 이사회 재결의 필요성 검토.

⑥ 경영진 전략 연결

부분충족 · 474자

코퍼스 채택 CFO역할 13.8%(59건) · 주식보상 9.8%(42건) · CEO책임 4.4%(19건) — 백서 2.6 충족률 7.3%

공시 계획 9면 자본배분 원칙은 당기순이익 100을 배당 20·성과급 30·Capex 50으로 나눈다. 성과급을 이익배분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코퍼스에서도 드문 서술이지만, 그 성과급이 어떤 지표에 연동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 부분충족에 머문다. 이 항목의 백서 충족률은 7.3%로 12항목 중 가장 낮고 코스닥 선정은 0건이다. 자사는 각자대표 2인 체제이고 임원 보수한도가 주총 승인 사항으로 이미 운영된다. 주식보상 축(9.8%)은 자기주식을 소각한 뒤라 신규 취득이나 신주 발행이 전제된다. 방향은 연동 지표에서 갈린다. 순이익 연동은 산식이 단순한 대신 적자 구간에서 지급이 0이 되고, 가동률이나 영업이익률 연동은 조업 개선을 직접 반영하지만 주가·자본효율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어느 쪽이든 산정식 공개가 사후 재량 논란을 막는다. 자본배분 원칙을 이미 공개했으므로 성과급 30%의 배분 기준만 덧붙이면 이 항목은 부분충족에서 벗어난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공시 계획 9면

선택 시 필요한 것 보수위원회 부재 상태의 결정 주체 확정, 평가지표와 산정식, 주총 보수한도와의 정합성.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⑦ 이사회 커뮤니케이션

부분충족 · 483자

코퍼스 채택 사외이사 49.4%(211건) · 감사위원회 33.0%(141건) · 전자투표 32.6%(139건) · 집중투표 22.7%(97건)

공시 계획 10면 ESG의 G축은 ESG 담당자 지정·운영, 3개 분과(환경·사회·지배구조) 협의체, ISO27001 인증을 담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내걸었다. 다만 이사회 자체에 관한 목표와 이행일정이 없어 부분충족이다. 실태는 사외이사 3인(비율 60%), 감사위원회 3인 전원 사외이사, 회계·재무전문가 1인으로 코퍼스 상위 축(사외이사 49.4%, 감사위원회 33.0%)에 이미 부합한다. 반면 전자투표·서면투표 미도입, 집중투표 정관상 배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미설치는 그대로다. 방향은 도입 범위에서 갈린다. 전자투표만 도입하는 A안은 정관 변경 없이 가능하고 소액주주 3,282명·40.11%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직접 바꾼다. 집중투표 배제 조항까지 손대는 B안은 최대주주 52.8% 구조에서 지배력 영향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ESG 협의체의 지배구조 분과에 이 결정을 안건으로 올리면 계획에 이미 만들어 둔 기구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공시 계획 10면 · 사업보고서 제38기

선택 시 필요한 것 전자투표 위탁기관 선정과 비용, 정관 변경 시 주총 특별결의 일정, 지배력 영향 검토.

⑧ 제고 계획 공시

충족 · 474자

코퍼스 채택 ESG 73.3%(313건) · 배당성향현황 60.2%(257건) · 핵심사업집중 57.1%(244건) · 자사주매입 56.2%(240건)

2026년 5월 자율공시로 이 항목은 충족이다. 첨부 계획서 12면에 사업전략(기존사업 확대·첨단소재 사업화·AX 도입·경영내실화), ESG 3축, 주주환원 정책,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모두 실렸다. 코퍼스 상위 축 중 ESG(73.3%)·핵심사업집중(57.1%)·신사업(45.9%)은 충족하고, 자사주 축은 공시 이후 304,800주(발행주식의 4.78%) 소각으로 실행까지 이어졌다. 남은 대조점은 주주환원 현황 축(배당성향현황 60.2%, 배당이력 37.2%)이다. 30년 연속 배당은 9면에 있으나 연도별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시계열은 없다. 방향은 보강 범위에서 갈린다. 배당 이력만 수치화하는 A안은 기존 자료로 끝나고, 목표 배당성향 20%가 산업재 목표 평균 35%보다 낮은 이유를 함께 적는 B안은 잉여현금흐름 50% 한도라는 자사 제약을 설명하게 된다. 순손실 국면에서 30년 연속 배당을 이어온 사실은 그 자체로 서술 가치가 있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공시 계획 9면

선택 시 필요한 것 연도별 배당성향·수익률 시계열 정리, 20% 설정 근거의 문서화, 소각 실행 결과의 후속 반영.

⑨ CEO / CFO IR

충족 · 495자

코퍼스 채택 NDR 55.3%(236건) · 실적발표 45.7%(195건) · IR조직 12.4%(53건) · IR정례화 9.4%(40건)

공시 계획 11면은 현재를 「비정기적 IR 활동」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TO-BE로 C-Level의 정기적 IR 진행과 Investor Day 개최를 제시해 이 항목은 충족이다. 코퍼스에서 경영진 소통 축의 백서 충족률은 39.1%이고 코스닥 선정은 0건이므로 제시 자체가 상위군이다. 남은 것은 실행 조건이다. 직원 131명·기획재경팀 2인 규모에서 전담 IR 조직(채택 12.4%) 신설은 부담이 크고, 계획에는 개최 빈도·시기가 없다. 방향은 정례화 수준에서 갈린다. 연 1회 Investor Day로 시작하는 A안은 각자대표 2인 중 1인이 나서면 경영진 참여 요건을 채우고, 분기 실적발표(채택 45.7%)까지 여는 B안은 분기 재무자료 작성 주기를 IR 일정에 맞춰 앞당겨야 한다. 어느 쪽이든 빈도를 숫자로 못 박는 순간 ⑪ 이행관리의 측정 대상이 된다.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확대는 현재 투자의견·목표주가가 없는 상태라 첫 리포트 발간 시점을 성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공시 계획 11면

선택 시 필요한 것 IR 담당 지정, 개최 빈도와 채널 확정, 공정공시 규정 준수 절차.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⑩ 투자자 피드백 수집

부분충족 | 465자

코퍼스 채택 영문공시확대 37.2%(159건) · 홈페이지게재 22.2%(95건) · 영문IR자료 8.2%(35건) · 밸류업전용 2.6%(11건)

국내 피드백 수집과 외국인 소통은 성격이 다르므로 나눠 본다. 국내 축(백서 2.10)은 공시 계획 11면의 국내외 투자자 IR 확대·애널리스트 커버리지 확대·수시공시 확대로 충족했다. 외국인 축(백서 2.11, 희소성 높음, 코스닥 선정 0건)은 「수시/영문 공시 확대」 한 줄에 그쳐 부분충족이다. 코퍼스에서 영문공시 확대는 37.2%(159건)로 이 축의 주된 방식이고, 영문 IR자료(8.2%)·영문 홈페이지(4.7%)로 갈수록 채택이 낮아진다. 자사 외국인 보유비율은 2.70%(172,319주), 수출은 7,553백만원으로 매출의 7.4%다. 방향은 범위에서 갈린다. 영문 공시만 늘리는 A안은 번역 대상이 공시로 한정돼 유지 부담이 낮고, IR자료·홈페이지까지 여는 B안은 희소성이 크지만 1회성으로 끝내면 갱신 지연이 그대로 드러난다. 수출 거래처가 일본·미국·중국에 걸쳐 있어 영문 자료의 1차 독자는 이미 존재한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공시 계획 11면

선택 시 필요한 것 영문 대상 문서의 범위와 갱신 주기 확정, 번역 체계, 피드백 접수 창구의 담당 지정.

⑪ KPI 이행관리

미충족 | 498자

코퍼스 채택 전담조직 6.1%(26건) · 정기점검 1.4%(6건) · KPI연동 1.2%(5건) · 이사회보고 1.2%(5건) — 항목 채택 39건(9.1%)

공시 계획에 목표는 있으나 그 목표를 누가 언제 점검하는지가 없어 미충족이다. 측정 대상은 이미 확정돼 있다. 매출 2,400억원·PBR 2.0배·ROE 10%·배당성향 20%, 그리고 연도별 매출 경로(2026년 1,134억부터)까지 계량화돼 있으므로 점검 지표를 새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 항목은 코퍼스 39건(9.1%)으로 13항목 중 가장 적게 다뤄졌고 백서 2.7 충족률은 4.0%다. 관측된 축은 전담조직(6.1%)·정기점검(1.4%)·이사회보고(1.2%)로 모두 조직 신설보다 보고 경로 지정에 가깝다. 자사는 2025년 이사회를 8회 열었고 출석률 100%이므로 기존 이사회를 경로로 쓰면 신설 부담이 없다. 방향은 주기에서 갈린다. 연 1회 결산 이사회에 붙이는 A안은 기존 일정 안에서 끝나고, 반기 점검을 두는 B안은 중간 시점의 실적 집계 체계가 필요하다. 점검 지표는 공시된 목표와 같아야 하며, 목표는 PBR로 걸고 점검은 매출로 하는 불일치가 가장 흔한 실패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공시 계획 6~7면 · 사업보고서 이사회 개최 실적

선택 시 필요한 것 점검 주기, 보고 문서 양식, 이사회 안건 등재 절차. 연도별 매출 경로를 그대로 점검 지표로 사용.

⑫ 시장 반응 분석

미충족 | 472자

코퍼스 채택 이행현황공시 55.7%(238건) · 연간공시 52.2%(223건) · 달성률 6.1%(26건)

첫 공시이므로 이행현황 공시가 아직 없고, 계획에도 후속 공시 주기가 적혀 있지 않아 미충족이다. 코퍼스에서 이 항목은 337건(78.9%)이 다루며 축은 이행현황 공시(55.7%)와 연간 주기(52.2%)다. 달성률을 수치로 밝힌 공시는 6.1%(26건)에 그친다. 백서 관측으로는 주기적으로 공시한 114개사의 주가지수가 200으로 단발 공시 473개사의 182보다 높았다. 자사 TSR은 7.23%이나 52주 범위가 2,300~8,900원이고 무상증자 권리락이 끼어 있어 단년 수치로 반응을 판정하기는 어렵다. 방향은 주기 확정에서 갈린다. 첫 공시로 끝내는 A안은 이 항목이 성립하지 않고, 연 1회 이행현황을 이어 붙이는 B안은 기준일과 권리락 조정 규칙을 지금 고정해 두어야 다음 해 수치가 조정 전후 어느 기준인지 다투지 않는다. 자사주 304,800주 소각도 주당 지표를 바꾸므로 같은 규칙 안에서 처리 방식을 정해 두어야 한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주기적 공시 주가 관측치

선택 시 필요한 것 기준일과 조정 규칙 사전 고정, 이행현황 공시 시기 확정, 목표 미달 시 서술 원칙.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⑬ 전략 수정

미충족

코퍼스 채택 계획수정 5.2%(22건) · 재공시 1.2%(5건) · 환경변화반영 0.7%(3건) — 항목 채택 28건(6.6%)

492자

공시 계획 2면 Disclaimer는 예측정보의 불확실성과 실제 결과의 불일치 가능성을 명시했다. 이는 코퍼스 다수가 쓰는 일반 면책 문구에 해당하며, 어떤 조건에서 계획을 수정할지는 없다. 이 항목은 코퍼스 28건(6.6%)으로 가장 적게 다뤄졌다. 자사 사업 조건의 변동폭은 큰 편이다. 매출이 FY2023 133,065백만원에서 FY2024 99,514백만원으로 25.2% 줄었다가 101,817백만원으로 되돌았고, 선철 단가는 kg당 812원에서 731원으로 3년간 하락했다. 목표 CAGR 18.7%는 이 변동폭 위에 놓인 값이다. 방향은 수정 요건의 사전 정의에서 갈린다. 현 면책 문구를 유지하는 A안은 다수와 같고, 매출·원자재가의 변동폭을 재검토 트리거로 명시하는 B안은 선례가 거의 없는 대신 임계치를 낮게 잡으면 계획이 매년 흔들려 보이고 높게 잡으면 A안과 같아진다. 신사업 비중 28%처럼 시작 단계 가정이 큰 항목부터 트리거를 거는 방식도 선택지에 있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공시 계획 2·7면 · 사업보고서 원재료 가격 추이

선택 시 필요한 것 B안 선택 시 트리거 변수와 임계치 정의, 재검토 주체와 소요 기간, 재공시 절차.